

총무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一. 안정과 화합의 기초 위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한국불교는 지금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시대의 벽두에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역사를 장엄할 힘있는 불교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에 떠밀려 혼란과 안일의 낡은 구태를 반복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이라 일컬어지는 역사의 조류는 그 변화의 흐름이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우리들 불자대중에게 역사구원의 영겁기단이 될 교단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자기개혁과 중생회향의 대승원력을 요구합니다.

그간 우리 종단은 94년도 개혁불사를 통해 분규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안정과 화합의 바탕을 이루어 왔으며, 21세기 인류구원의 종교로 도약할 교단의 제도적 터전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결코 일과성 행사에 그쳐서도 안되며 작은 성과에 만족하여 정체에 길에 안주해서도 안됩니다. 개혁은 과거의 낡은 관행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야 할 발원과 정진의 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난 4년 종단이 이룩한 개혁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입장과 개혁조급증을 넘어서서 안정과 화합의 기초 위에서 꾸준히 보다 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개혁만이 바른 개혁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인은 닦은 바 모든 공덕을 깨달음과 역사에 회향하라는 불조의 부촉과 안정과 화합 동사섭의 정신으로 개혁불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길 바라는 중도들의 뜻을 받들어 다시 종단 운영과 개혁의 심부름꾼 노릇하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종단 운영의 공과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위로 종단 원로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중진들의 경륜과 참신한 뜻을 결집하며 중도 대중과 손맞잡고 21세기를 열 영광된 조계종단 건설에 온 몸 바칠 것을 삼보전에 두 손 모아 다짐하는 바입니다.

一. 역사의 부름과 대중의 여망에 부응하는 불교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사회는 현재 국제통화기금체제라고 하는 일찍이 없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중은 세기말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적 혼돈을 겪고 있으며 분단현실 등 갖가지 갈등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땅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늘 국난을 극복하는 진리의 힘이 되고 사회의 병폐를 다스리는 법의 약이 되어 왔습니다. 불교는 고대국가에서 국민통합의 중심이념이 되었고, 고려건국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때로 외침을 막는 호국의 칼이 되고 민족정기를 지키는 사상의 보루가 되어왔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위기 상황과 고통현실 속에서 국민대중은 불교로부터 위기를 극복해 낼 용기와 지혜를 바라고 있으며 고난의 현실을 타개해 낼 불교교단의 사회적 실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단의 온 역량을 기울이고 불교대중의 힘을 한 데 모아, 국민대중에게 지혜와 삶의 용기를 주며 중생회향(衆生廻向)의 실천으로 이 땅을 해탈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소납이 삼처회향(三處廻向)의 불사에 앞장서길 지심으로 발원하는 바이니 중도 대중은 함께 힘을 모아 삶의 집에 눌러 지친 국민대중에게 힘을 주고 희망과 절망 속에 헤매는 이에게 지혜와 희망을 주는 불교를 세워 나갑시다.

一. 지난 개혁의 성과와 전통을 이어 못다 한 개혁의 과제를 이루겠습니다.

불교가 사회 구원과 중생회향의 건강한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대중의 자각과 교단의 간단없는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방이후 우리 교단사를 돌이켜 보면 불교의 사회적 실천역량이 확대되는 과정은 바로 교단개혁과 자주화 실현의 과정이었습니다. 5,60년대 불교정화운동은 왜색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청정한 승풍과 수행가풍을 진작시켰으며, 80년대 10·27 불교법난 이후 불교자주화운동은 교단의 자주권수호의 운동이자 사회민주화운동에 합류했던 대중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우리가 이루어 낸 개혁불사는 자주적 교권수립의 실질적 체험이었으며 민주적 교단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낸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본인이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행했던 지난 4년의 교단 운영은 94년도 개혁입법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개혁내용을 실천해 가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그간 꾸준히 제창해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정화운동이 이루어 낸 교단의 보리회향을 중생회향과 하나되게 하는 사상적 기초와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해방이후 교단사가 보여주듯 교단의 멈춤 없는 개혁과 자주역량의 수립이 없이는 이 땅을 정토화 하려는 중도 대중의 대승원력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우리가 성취해낸 개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직 이루지 못한 개혁 내용을 보다 더 결집된 힘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교단운영체계를 말사와 본사, 본사와 중앙종무기관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어 서로 협의하고 조언하는 민주적인 종단운영체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선과 교, 선과 사회적 실천의 하나됨을 위해, 보살사상의 정립에 힘쓸 것이며 선풍진작과 교학진흥을 위해 수행기관, 교육기관에 최우선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의 대중화, 전통교육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교단의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단운영체계를 정비해 가겠습니다. 대장경의 전산화를 계속 추진함과 아울러 불전의 구역,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작업에 종단의 사상적 힘을 기울이며 꾸준히 지원을 보낼 것입니다.

본말사 사찰운영위원회와 신도회, 중앙신도회의 활성화를 통해 재가불자가 종단운영과 개혁불사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며 신도 스스로 전법의 주체가 되게 하여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각종 법인 사설사암, 도시포교당 등을 교단의 제도적 사상적 지도권 안에 수렴하여 함께 대단합의 거대종단을 꾸려감으로써 조계종단의 물적 사상적 역량을 증대시켜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개혁에의 의지는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중도 대중이 함께 힘을 합하지 않으면 결코 보람된 개혁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몸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동참하여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의 산 면목을 국민대중 앞에 나투어 보십시오.

一.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의 도약을 위해 밀거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는 고도 과학기술사회, 정보화사회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지구촌화,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은 지금 국민국가간의 닫혀진 벽을 낚아치며 세계는 하루 생활권으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 내적으로도 통일을 향한 역사의 도정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시대 21세기 신문명시대에 우리는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며 대중의 삶과 역사를 향도하는 불교의 일대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무념(無念)의 종지를 통해 정보의 과잉으로부터 인간소외를 막아내고 적극적으로 불교사상을 정보화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바른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대무변한 불교의 자각정신으로 역사의 대전환기를 용기 있게 맞이하며 그 전환의 격동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대처함으로써 불교가 미래 신문명 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지혜의 길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서원 세워 그 길에 밀거름이 되고자 하니 중도 대중은 서로 손잡아 개혁불사의 서원을 같이 실천해 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우리들의 서원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증명하시고 옹호성증은 보살피시어 보살도 실천의 앞길에 온갖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이 땅이 풍요와 번영의 땅, 해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기 2542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9대 총무원장 후보 송 월 주 합장